

폭염 영향예보로 여름을 건강하고 안전하게

- 올해 첫 폭염 영향예보 발표(작년보다 14일 늦어)

- 대구지방기상청(청장 함동주)은 대구와 경북 일부내륙지역에 18일(일)까지 33도 이상 무더운 날씨가 예상되어, 을 들어 첫 폭염 영향예보를 15일(목)에 발표하였다.
 - 폭염 영향예보 발표 지역(보건분야 일반인기준)
 - 관심지역: 대구, 경산, 경주, 칠곡, 구미, 김천, 의성, 안동, 영주
 - 폭염 영향예보는 폭염으로 인한 영향이 큰 6개 분야*에 대해 예상되는 위험 수준과 대응요령 등을 포함한 **영향정보를 제공한다.**
 - * 6개 분야: △보건 △산업 △축산업 △농업 △수산양식 △기타
 - 폭염 영향이 예상될 때 지역별 폭염 영향정보를 하루 전날 오전 11시 30분에 **폭염 위험수준을 4단계(△관심 △주의 △경고 △위험)**로 구분하여 제공한다.
 - 특히, 4단계 위험 수준을 통해 폭염주의보 발표 이전(관심)의 위험뿐만 아니라, 폭염이 지속되어 매우 심각한 위험 초래할 수 있는 경우(위험)에도 영향 정보와 대응요령을 제공한다.
- 함동주 대구지방기상청장은 “어르신과 야외노동자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폭염정보 직접 제공과 함께 버스, 지하철 등 대중교통 전광판 표출 등을 통해 지역민이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” 라고 밝혔다.